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문 성 호*

본 논문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패러다임의 중요한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방법을 어떻게 우리나라 가족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질적 연구방법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설계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기술된다. 둘째,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의미와 적절성 그리고 이의 구체적 적용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된다. 셋째, 가족치료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이슈들이 검토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치료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가족치료 분야에 새로운 조사연구 패러다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가족치료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구조와 현실의 총체적 표현이 가능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은 가족형태와 경험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치료의 과학 및 실천을 향상시킬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가족치료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향상시킬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I. 서론

가족치료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가족치료에 관심을 갖고 연구, 교육, 훈련 및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가족치료에 대한 조사연구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최근, 1995: 45).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성천 외, 1996: 102).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치료 연구들은 특정 가족치료 모델을 소개하거나 이를 임상에 적용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의 적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어떤 모델과 이의 치료기법이 치료집단의 형태 및 상황에 따라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황성철, 1998: 244). 가족치료 분야의 사회복지사는 특수한 임상적 상황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실천지식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우전임강사

을 도출하고 실천현장에 보다 잘 적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한가지 조사연구의 모델 혹은 방법론을 가지고 특수한 임상적 상황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금까지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조사연구와 실천 사이의 통합의 결여이다. 비록 기본적인 유사성들이 존재하지만 실천가와 연구자는 의사소통의 차이에 의해 조사연구와 실천을 두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Wynne, 1983: 113-117). 조사연구와 실천 사이의 분리는 가족치료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다.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치료에 관한 조사연구는 치료자에게 실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실천가 혹은 치료자는 그들의 일상과업을 수행할 때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이용하지 않는다(Haynes et al., 1987: 515-519).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들의 경우도 조사연구가 중요하고 유용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조사연구의 결과를 실천과업을 이행하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김연옥, 1993: 201-224).

이러한 행동에 대한 치료자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연구에서 강조되는 질문들은 임상적 실천에 부적절하다; 측정방법, 모집단, 변인들은 임상적 현실을 불충분하게 표현한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집단의 평균치를 너무 강조하고 임상적 중요성 혹은 개별 케이스에 관해 거의 언급이 없다; 치료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들을 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세미나 혹은 학술대회의 참석이 용이하지 않다(Cohen et al., 1986: 200-201; Hayes & Nelson, 1981: 209-215; Morrow-Bradley & Elliot, 1986: 190-195). 질적 조사연구는 그 방법이 실천가의 활동세계와 가깝기 때문에 연구자와 실천가를 재결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질적 연구자는 실천가가 원하는 질문들에 대답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텁색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족치료의 임상적이고 일상적인 과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조사연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특히 질적 연구방법이 어떻게 가족치료에 의해 활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치료에 대한 질적 조사연구와 이의 실천에서의 효과는 어떠한지는 중요한 이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새롭고 발전된 형태의 질적 연구방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방법은 상호 보완적이고 동등한 인식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추상적 수준에서 동의한다. 하지만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르게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가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계속적으로 냉대를 받아왔다. 즉 대부분의 논문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패러다임의 중요한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방법을

어떻게 우리나라 가족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질적 연구 방법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설계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기술된다. 둘째,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이 갖는 의미와 적절성 그리고 이의 구체적 적용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된다. 셋째, 가족치료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이슈들이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발전을 위한 합의를 제시한다.

II.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1. 질적 연구방법 패러다임의 일반적 특성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이 연구방법의 본질에 대해 혼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마치 질적 연구방법이 하나의 접근인 것으로 인식하는데 기인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매우 다양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은 분명해 질 수 있다. Jacob(1988: 16-24)은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으로부터 생성된 질적 연구방법의 전통들, 즉 인간행동학(human ethology), 생태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 총체적 민족학(holistic ethnography), 인지인류학(cognitive anthropology), 의사소통 민족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를 그의 논문에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들은 자연적 환경, 인간행동의 주관적 측면, 연구질문의 도출, 참여관찰 등에 있어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태심리학자들은 환경에 대한 개인적 목표 및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 인간행동의 주관성을 정의한다. 세 가지 인류학적 전통들은 인간행동의 주관적 측면들을 문화로 정의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상징적 상호작용 과정과 관련하여 이를 정의하고 있다.

비록 다양한 전통들이 존재하지만 질적 연구방법들이 공유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질적 연구자들은 관여된 참여자의 견해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복잡한 사건, 행위, 상호작용의 의미를 이해하려 시도한다. 이들은 적은 수의 케이스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일반적 원칙들을 찾고 현상의 총체적 이해에 관심이 있다. 양적, 특히 실험적 연구방법이 연역적이고 객관적인 것과는 반대로 질적 연구방법은 귀납적이고 주관적이다.

또한 양적 연구방법이 사회적 개념들은 변인들로 개념화될 수 있고 수량화를 통해 사회적 세계의 중요한 특징들을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질적 연구방법은 특수한 케이스의 주관적 의미 혹은 해석, 설명, 직관, 정의, 상징, 비유, 묘

사, 통찰력, 가치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문성호, 1997: 145). 즉 질적 연구방법은 수량화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세계의 다른 측면들을 확인하려 시도한다.

결과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를 공유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일상적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화하는지를 탐색하도록 허용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자연적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실천자가 그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바로 질적 연구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질적 패러다임의 주요 가정을 정리하면 첫째, 인간의 사회적 현실은 그들의 사고를 구성하는 활동에 의존한다. 둘째, 연구과정에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치는 연구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셋째, 연구의 핵심적 목적은 개별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에 대한 해석적 이해이다(문성호, 1997: 152-153).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방법 패러다임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방법이 사회적 현실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과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두 패러다임은 분리되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Smith & Heshusius, 1986: 4-12). 이와는 달리 실용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가장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그들의 연구질문들에 대답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이들은 실천적 수준 혹은 인식론적 수준에서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owe, 1988: 10-14).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통합론자들은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방법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사회사업 지식의 확충을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황성철, 1998: 232). 각각 별도로 사용된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이슈에 초점을 두었을 경우 이들 방법들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혹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Firestone, 1987: 20). 통합론자들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인간의 현실세계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인간의 인지와 인식의 본래적 제한점들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식론적으로는 관찰자가 관찰되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관찰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객관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객관성은 체계적인 조사방법과 연구자의 잠재적 편견에 대한 분명한 설명 등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있다고 인식한다.

2. 질적 연구설계의 특성

질적 연구설계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조사연구의 전략 및 경험적 자료수집을 위한 방법과 연

결하는 융통성 있는 지침을 기술한다. 또한 연구자를 경험적 세계에 위치하게 하고 이들을 특수한 장소, 사람, 그리고 적절한 해석적 자료와 연결한다. 질적 연구자들은 사전에 어떤 가정 없이 그들의 자료에 접근하려 시도한다. 그들은 자연적인 환경을 탐색하고 총체적으로 사건 및 행위를 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질적 조사연구는 다른 조사연구와 같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적 준거틀에 의해 정보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자들은 조사연구가 수행되기 전에 분명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을 진술한다. 대부분의 질적 조사연구에서의 질문은 자료수집 및 분석단계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조사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변화될 수 있다(Lincoln & Guba, 1985). 그러므로 질적 연구설계는 양적 연구설계보다 자료에 더 개방적, 탐색적, 유동적, 그리고 반응적이다.

질적 연구자는 조사연구의 참여자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참여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부분의 질적 조사연구에서 연구자는 그 자신이 바로 중요한 자료수집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역할과 편견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질적 조사연구의 참여자는 실험연구의 대상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평등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경우 참여자는 공동연구자 및 협력자가 되기도 한다. 질적 조사연구에서 참여자를 선택할 때 확률표본 기술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다양한 판단기준에 따라 적절한 분석단위와 참여자를 선택한다. 극단적 사례표집, 할당표집, 독특한 사례표집, 평판이 있는 사례표집, 편의표집, 포괄적 표집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택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방법들은 모집단에 일반화하기보다는 이론을 일반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연구의 설계에 적합하다(Yin, 1989).

자료수집과 분석은 질적 조사연구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항상 자료는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된다. 이는 질적 연구자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다. 자료수집 테크닉은 계획적으로 이론적 관점과 연결된다. 자료수집은 이론적 성향과 별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선택, 연구의 수행, 그리고 궁극적으로 분석을 위한 동기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료수집 방법에는 참여 및 비참여관찰, 면접, 그리고 문서분석 등이 있다. 대체로 질적 관찰은 연구방법론 문헌에서 다양한 자료수집 테크닉들 가운데 하나의 조사연구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질적 패러다임에 의해 구성된 관찰은 표준화와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상황에서 수행되는 양적 관찰과는 현저히 다르다. 질적 관찰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에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를 사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관성 및 원인들이 확인되는 사회적 세계의 현상학적 복잡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연적 관찰자는 흔히 그들의 관찰 범위에 있어 양적 관찰자와 다르다. 전자가 행동의 경향, 패턴 및 스타일을 관찰한다면 후자는 하나의 변인으로 모아질 수 있는 사회적 세계의 미소한 부분에 초점을 둔다.

면접은 현재 방법론적 변화만이 아니라 면접인 그리고 피면접인과 관련하여 더 심층적 변화

가 진행 중에 있다. 질적 조사연구에서 피면접인은 더 이상 양화되고 범주화된 그리고 목록에 수록된 익명의 반응자가 아니라 항상 잊어지고 억압받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간주된다. 피면접인을 인간으로 대우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객관적이고 익명의 면접인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우리 자신의 숨겨진 것을 밝힐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반응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이들의 기여는 단지 폐쇄된 반응뿐일 것이고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은 한정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수집방법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분석은 귀납적이고 반복적이다. 가정을 지지하는 것 이 아니라 현상의 풍부한 설명을 도출하고 이론을 발견하는 것이 자료분석의 주요 목적이다 (Strauss, 1987). 계속적 비교방법을 사용해서 동시에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이 과정은 초기 주장을 확인하거나 확인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 양적 연구자가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변인들의 패턴을 분석한다면 질적 연구자는 광대한 자료에 물두하여 사람들의 삶, 행위, 단어에 있어서의 패턴을 찾는다. 이는 연구자에게 인간의 삶 그리고 문화와의 친밀성을 가져다 준다.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에 질적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작문기술을 요한다. 질적 연구자는 개념적 및 이론적 준거를, 연구목적, 연구질문과 연구가 진행 됨으로써 나타나는 질문의 변화, 참여자 선택기술,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전략, 연구자 및 참여자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연구결과 및 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논의함으로써 조사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연구보고서는 독자들이 저자의 결론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촉진하고 도출된 해석 및 적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III. 질적 연구방법의 가족치료 분야에의 적용

1. 가족치료에서의 질적 조사연구의 의미

1950년대 미국 가족치료 분야의 초기 발전은 확실히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가족 치료센터에서 치료연구팀은 일방거울을 통해 치료과정을 관찰하여 잠정적 가정들을 개발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가정들을 후속적 치료과정에서 확인하였다(Eisler et al., 1988: 50-55). 이러한 임상적, 현상학적, 귀납적 연구방법을 통해 가족치료의 초기 이론들이 발전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연구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질적 조사연구가 더욱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가족구

성원의 상호작용에 강조를 두는 미시적 가족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질적 접근으로 이동하였다. 게다가 공공 그리고 민간재원의 감소로 말미암아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드는 가족치료의 탐험적 혹은 설명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촉진하였다(Hill, 1981: 255-257; Wiseman, 1981: 263-266).

가족치료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치료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가족은 다양성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되는데 가족치료에서의 질적 조사연구란 가족내의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외부 체계 사이에 관한 연구도 포함한다. 또한 질적 조사연구는 수량적 표시보다 언어에 의존하는 그리고 가족생활의 상징적 혹은 현상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와 그들의 환경에서 분리되어 미리 정해진 모델에 기초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접근과는 구별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치료 분야에 새로운 조사연구 패러다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가족치료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자는 Blumer(1969: 29-32)가 지적한 것처럼 조사연구를 수행할 때 참여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긴밀한 접촉을 추구하고 개념과 가정을 의식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참여자의 의미와 해석을 이해하려는 목표에 기반을 둠으로써 연구수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삶과 환경에 친숙하려 해야 한다.

가족치료에서 질적 조사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질적 조사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치료적 관점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Goolishian & Anderson, 1992: 11-12). 1950년대에서 최근까지의 가족치료 패러다임의 발전은 소극적 경청과 전문가의 해석을 강조하는 심리역동적 이론 기간, 의사소통이론 기간,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활동적 조작을 강조하는 구조적 이론 기간으로 구분된다. 최근 의미의 사회적 구축에 있어서 언어와 대화의 역할에 중심적 강조를 두는 가족치료의 새로운 견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모델에서의 치료는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공동참여를 통한 대화적 행위로 고려된다. 무언가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강조를 둔다. 이 모델에 기초한 가족치료의 과정은 치료적 대화를 포함한다. 치료적 대화란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한 상호적 탐구 노력을 의미한다.

2. 질적 연구방법과 가족치료 사이의 적합성

최근 일부 가족치료 분야의 연구자들은 가족치료의 복잡성을 해결하려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단순화해서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가족치료 이론에 의해 제안된 다양한 관점

및 계속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기보다 클라이언트에 의해 표현되는 징후 및 궁극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Bednar et al., 1988: 405-410). 그러나 다른 가족치료 연구자들은 가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사회제도 및 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다. 사회적 집단의 하나인 가족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프라이버시,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집합적 의식, 혈연 혹은 결혼에 기초한 영속적인 관계, 공유된 전통, 그리고 긴밀한 관여 등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특히 한국 가족제도는 인간관계 중심적 문화와 화목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가장 중심적 가족구조 및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의사소통 유형 그리고 협상과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을 지닌다(송성자, 1997: 165-171).

질적 연구방법은 이러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즉 가족 구성원들의 의미, 해석, 그리고 주관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가족구조와 현실의 총체적 표현이 가능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은 가족형태와 경험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에 있어서 구조적 혹은 인구통계학적 경향을 확인하기보다 가족이 그들의 현실을 유지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의 수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어떻게 그들 경험의 의미를 통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Daly, 1992: 4). 이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의 총체적 조사연구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작용의 유형과 가족역할 및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가족의 교류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해 준다.

대부분의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고 그 개인의 특성, 태도, 그리고 행동에 초점을 둔다. 이와는 달리 질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할 수 있고 분석단위들도 다양하다. 또한 역동적인 가족경험을 깊이 있게 진술하고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사용되는 참여관찰과 개방적인 면접은 가족의 상호작용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비록 관찰 혹은 면접의 실천적 제한점 혹은 어떤 조사연구 질문의 본성은 연구자가 가족 구성원중 한사람에게 초점을 두게 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전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들 수 있는 것이 질적 연구방법이 지닌 강점이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관점, 복잡성, 개인적 차이, 순환적 인과관계, 전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치료자 혹은 연구자의 정형화된 관점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관점으로부터 가족치료의 경험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Kuehl et al., 1990: 310-321). 예를 들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해 같은 가족 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떤 가족구성원은 가족치료가 가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가족을 위한 성공적 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처우를 완성할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한다. 가족치료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조사연구는 치료자가 개입을 생각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흔히 가족은 사회적 집단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고 사적인 집단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족의 높은 방어적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전통, 비밀, 그리고 습관을 유지 및 보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연합한다. 외부자의 엄밀한 조사로부터 갈등적 혹은 역기능적 행동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이 그들의 독특한 자기정의(self-definitions)를 구성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다. 다른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질적 연구방법은 점진적으로 신뢰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결국 이면적 가족의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참여자와의 관계구축을 허용한다(Daly, 1992: 5). 예를 들면 비구조화된 면접, 관찰, 그리고 기록은 참여자가 그들 경험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그들 자신의 자연스런 환경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편안함에 따라 경험을 논의하게 허용한다. 설문조사 혹은 실험의 공식성을 부과하기보다 참여자의 삶의 세계에 들어가게 허용함으로써 질적 연구자는 가족의 사적인 의미에 접근하기 용이하다.

3. 연구유형에 따른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가족치료의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발견/탐색 지향적 조사연구에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하다. 사실 초기 가족치료자들은 이론의 발견에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치료자들은 팀으로 치료과정을 수행 및 관찰하여 그 결과를 논의하였고 단기간의 가족치료에 의해 무엇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사용한 자료분석 방법은 일방거울을 통한 치료과정의 관찰, 오디오테이프의 상세한 검토 및 일반화를 위한 논의와 노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공식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Moon et al., 1990: 365-366). 이처럼 발견/탐색 지향적 조사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보다 개념화하고 이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면 효율성의 증거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떠한 새로운 임상적 가족치료 이론들이 수용 혹은 거절되는지를 결정하는데 보다 나은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질적 연구방법은 발생적, 귀납적, 그리고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치료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특수한 사건의 전후관계에 대한 미시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가족문제와 관련된 변화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흔하지 않고 매우 복잡해서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Elliott, 1984: 251). 질적 연구설계는 시간경과에 따른 사건의 전후 관계에 있어서 드물고 복잡한 현상을 연구하는 한 방법을 제공한다. 가족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치료자들과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상호작용적 패턴들이 존재한다. 특히 상호작용적 패턴들은 매우 복잡해서 이를 추적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이해하고 그들이 치료현장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면 치료과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상호작용적 모델이 아

나라 단선적 관계에 기초한 단면적인 양적 측정도구는 이러한 패턴을 표현할 수 없다. 더 자연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과정연구에 적절하다.

또한 치료과정의 연구자들은 정확한 결과유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개념적으로 초점을 맞춘 사례표집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는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일반적이다. 가족치료의 과정에 대한 조사연구는 판단기준에 기초한 혹은 이론적 사례표집, 패턴탐색, 상세한 설명과 관찰, 현상의 전후관계의 과정, 발견지향 및 임상적 적절성 등의 일반적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원칙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자들이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Rice & Greenberg, 1984: 7-25; Yin, 1989).

한편 가족치료의 결과에 대한 조사연구는 분명히 통제된 실험적 연구방법을 격려한다. 그러나 전통적 조사설계 및 결과측정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은 결과연구의 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적 관계변인들을 평가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결과연구가 우선적으로 치료의 실용적 유형에 초점을 두었고 '심미적' 치료들에 관한 조사연구는 거의 없었지만(Allman, 1982: 43-56),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을 통해 보다 균형이 잡힌 결과연구의 문헌을 구성할 수 있다.

4.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단계

유사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가족치료의 연구자들이라도 그들이 질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양할지 모른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가운데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1960년대 중반 Glaser와 Strauss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질적 조사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접근이다. 이는 현상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귀납적으로 체계적 절차를 이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이론은 사실적인 조사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전되는데 이는 자료수집과 분석 사이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 이론은 사회적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일 반화를 추구한다(Corbin & Strauss, 1990: 3-21; Gilgun, 1991: 144-163; Murphy, 1990: 9-21). 그래서 흔히 계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이라 불리기도 한다. 가족치료 분야에서 이 이론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네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족치료의 연구영역과 질문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 경험, 조사연구와 이론의 지식, 혹은 임상적 실천에 있어서의 관찰을 통해 연구의 일반적 영역을 개발한다. 이 경우 연구자 자신의 이론적 관점, 사고 방식 그리고 편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연구질문들을 구상한다. 이와 함께 연구영역에 적합하다고 연구자 자신이 생각한 것에

기초하여 문헌을 검토하고 연구질문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질문의 변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 연구자는 조사연구의 방향과 초점을 바꾸기도 하고 연구과정 중간에 원래의 연구질문을 포기하기도 한다.

둘째, 심층적으로 조사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여 개방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먼저 연구자는 어떻게 자신의 연구동기를 설명할 것인지, 얼마나 깊이 참여할 것인지, 연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면접을 얼마나 구조화할 것인지, 그리고 참여가족 생활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연구로 알아낸 결과에 의해 이러한 결정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결정을 한 후에 가능한 개방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연구자는 사실상 관찰을 통해 혹은 관찰과 면접질문의 결합을 통해 첫 번째 사례를 관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장기록을 면밀히 작성한다. 현장기록을 작성할 때 설명적인 기록부분과는 별도로 연구자의 주관적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사례들에 따른 조사연구에서 알아낸 결과의 비교, 자료에 대한 이론적 추측, 그리고 기존 이론 및 조사연구 결과의 적합성 등에 관한 연구자의 생각을 포함하는 추측적이고 넓은 범위의 메모를 작성한다. 이 때 연구자는 가능한 참여자의 눈에 띄지 않게 즉각적으로 정기적인 기록을 작성하고 면접 혹은 관찰 당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도 가능한 모든 것을 기록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자주 자신의 기록을 분석하면서 드러나는 개념들의 초기 정의들을 검토하고 개념들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신중히 고려한다.

셋째, 다른 사례의 관찰을 통해 패턴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사례를 관찰하여 첫 번째 사례와 같이 관찰자 논평과 메모를 포함한 현장기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에도 많은 연구질문들은 조사연구에서 드러나는 결과에 기초할 것이다. 연구자는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첫 번째 사례의 패턴과 두 번째 사례의 패턴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양쪽 사례에 적합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질적 사례표집 방법을 사용 후속 사례를 선택하여 앞에서 진행된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연구자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개발했다고 생각했을 때 연구자가 자신의 조사연구에서 알아낸 결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문헌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론을 명확화 하는 단계이다. 즉 적절한 문헌과 경험에 근거한 가정을 연결하는 것이다. 후속적인 사례의 관찰을 통해 이론의 분명한 설명을 확인하고 이러한 후속적 사례의 경험적 패턴에 적합하게 이론을 변화시킨다. 관심을 가진 현상과 이론이 연계되는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교류적 가족체계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은 분명한 언어로 전술되고 조사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과 기존이론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이론 개발의 동기를 명확히 하면서 어떤 개인, 가족 혹은 사회적 체계가 관찰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족치료 분야의

임상실천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연구자를 위한 가정의 도출, 실천현장에 의한 새로운 이론의 평가가 용이하게 된다.

IV. 질적 조사연구의 수행과 관련된 핵심적 이슈들

1. 명확성과 관련된 이슈

질적 연구방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방법론은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용어와 개념은 불명확한 점이 많으며 어휘 및 연구표준에 불일치가 존재한다(Brown, 1988: 91-103; Yin, 1989). 최근에서야 질적 조사연구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나타나고 있다(Lincoln & Guba, 1990: 53-59). 흔히 질적 연구자는 그들의 과업이 일반화를 회피하여 타당성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질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질적 연구방법을 교육받은 잘 훈련된 연구자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단지 몇몇 사회복지 대학만이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잘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분명히 질적 접근의 관점은 많은 전통적 연구방법의 개념들과는 다르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질적 연구논문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드물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질적 용어, 연구방법, 기술 등이 다른 전통으로 훈련된 연구자에 의해 이해되려면 분명한 의사소통과 주의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 아마도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느냐가 질적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질적 조사연구에 있어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양적 접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다. 대체로 이러한 개방성은 연구자가 올바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연구자의 창조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족에 관한 연구방법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많은 질적 연구자들은 그들이 올바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질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이 지닌 다양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연구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방법은 가족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질적 연구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방법론적 그리고 이론적 관점들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질적 연구자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돋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가 더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더 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발표논문을 검토하는 학자 혹은 연구자는 질적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방법의 적합한 원칙에 의해 그들의 조사연구를 판단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이중역할과 관련된 이슈

질적 조사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연구자 역할과 전문적 원조자 혹은 치료자 역할에 대해 혼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Daly, 1992: 7-8). 연구자는 가족간의 갈등을 관찰하고 가족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문제를 토로할 개방적 환경을 제공한다. 혼히 조사연구에 참여한 가족구성원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자는 조사연구의 수행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가족들도 자신들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중역할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면서 연구목표를 유지해야 하는가? 정보, 카운슬링 혹은 조언을 해 주어야 하는가? 연구 수행시 치료자로의 역할 변화는 무슨 함의를 가지게 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첫째, 연구자와 참여자는 그들 관계의 확립이 공정한 교환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는 연구 환경에서 완전하게 사라질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수평적 관계를 확립하려 노력해야 한다.

둘째, 연구자 자신의 가족경험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상황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고통, 어려움, 그리고 당혹함을 이해하기 원하고 가족구성원의 경험에 그의 가치를 부과하려 시도할 지 모른다(Daly, 1992: 9-10).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처럼 개인적 반응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이는 질문의 방향과 조사하려는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중요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의미를 참여자의 의미에 추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연구자 자신의 반응 혹은 의견을 통해 참여자의 사회적 현실을 평가하려 하기보다 참여자가 그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셋째, 혼히 정보, 조언, 카운슬링 혹은 반응에 대한 요구는 연구관계에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요구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고 주관적 문제에 관해 참여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

한 준비는 필요하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 혹은 자격을 갖춘 치료자에 의뢰 등과 같이 다른 자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구자가 연구과정의 한 부분으로 조언 혹은 치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연구 관계에서 분리되어 분명하게 참여자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치료적 관계처럼 목표와 한계가 분명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비록 연구자가 조사연구의 수행이 그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지만 최소한 질적 조사연구에 있어서의 참여자는 치료적 효과를 추구하고 경험할지 모른다.

3. 가족치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

40여년간의 역사를 통해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치료의 개념적 발달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Bednar et al., 1988: 401-413; Wynne, 1983: 113-117). 특히 Bednar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다른 유형의 심리치료와 비교하여 가족치료의 기본적 개념들의 부정확한 정의에 비판적이다. 비록 많은 연구자들이 가족치료 분야를 향상시키는 조사연구의 건설적인 예를 제공하고 있지만 Bednar와 일부 학자들의 가족치료의 개입노력과 이론형성 활동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는 가족치료가 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정신건강 분야로부터의 조직적 그리고 개념적 소외; 신비하고 난해한 개념적 준거들; 임상적 실천에 기초한 적절한 이론의 부재; 훈련과 슈퍼비전의 평이성; 치료학파에의 몰두;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비유적 경향; 주기적 워크샵의 비즈니스적 운영(Liddle, 1991: 327-348).

이와 같은 가족치료가 지난 문제는 체계적 조사연구를 가족치료의 발전을 위한 중심적 과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조사연구를 통해 하나의 치료모델을 확립하기란 쉽지 않다는 결정적 사실을 임상적 연구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치료모델들은 계속해서 수정되고 개선된다. 치료모델의 수정은 가족치료자에게 잘 알려진 치료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탐색을 의미하는 피드백이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연구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내용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반응하려고 시도한다. 어떤 유형의 치료와 방법이 어떤 문제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 작용하는가? 이러한 조사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됨으로써 미래의 모델들은 확실한 치료의 지침을 가질 것이고 가장 효과를 미친 사람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연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서 연구자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요할 것이다. 창조성과 상상력은 흔히 가족치료의 실천과 조사 연구의 상호연계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적절한 질적 연구방법들에 의해 생산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미래의 가족치료 모델들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게 되고 조사연구와 실천 사이의 다원적 관계의 본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4. 윤리적 이슈

익명성과 가족의 비밀보장은 질적 연구방법 특히 가족에 관한 조사연구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를 야기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조사연구의 과정은 개방적이고 탐색적이기 때문에 미리 위험들을 예견하기 쉽지 않다. 또한 가족의 사적이고 친밀한 속성은 독특한 제한을 부과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분명한 윤리적 이슈를 제기한다(LaRossa et al., 1985: 95-111). 가족생활의 논의는 그 범위가 넓을 수 있고, 친구, 동료 혹은 이웃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질적 연구자가 연구의 정확한 범위를 완전하게 참여자에게 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참여자 자신이 프라이버시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격려하고 연구수행 기간중 언제라도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참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정 내에서의 비구조화된 면접과 비공식적 환경은 참여자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족문제를 폭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예상치 못한 폭로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에 반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오게 한다. 문제는 가족구성원 한 사람의 폭로가 다른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이 명백할 때 더욱 복잡하게 된다. 때때로 이러한 폭로의 시기와 상황은 연구자의 통제권밖에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경스러운 자세는 유용한 윤리적 기준이다. 이는 조사연구 수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참여자가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록에서 자료를 삭제함을 포함한다. 연구자는 적극적으로 참여자에게 걱정스럽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주제에 관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V.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에서 논의된 것처럼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토대는 다양성이다. 질적 연구자는 가족을 다양한 환경, 유형, 그리고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가족을 다양한 집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이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이 직면한 빈곤, 폭력, 이혼, 질병, 그리고 가족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가족들은 더 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치료의 대상인 가족들이 지닌 현상학적이고 구조적인 다양성에 더하여 가족 의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민감하고 실제적인 연구방법을 요구한다. 가족치료 분야는 추가적인 질적 연구방법 패러다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은 가족치료의 이론, 과학 및 실천을 향상시킬 잠재성이 있고 가족치료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향상시킬 잠재성이 있다고 믿는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우리나라 가족치료 분야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족치료 분야에 있어서 조사연구와 실천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연구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영역뿐만 아니라 임상적 실천에 대한 정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조사연구와 실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영역들 사이의 모든 차이 혹은 긴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필요한 변화는 주제에 관한 한 두 가지 연구논문, 교재 혹은 세미나에 의해 명확해지거나 사실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가족치료의 임상적 과업에 있어서 조사연구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기초하여 그 동안 치료자의 과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일반적으로 연구방법론에 관한 현재의 논의들은 연구방법과 연구발전에 대한 함의들을 확장하지 못하고 실천과의 연계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질적 연구자에게는 중요하다. 또한 질적 연구자는 효율성의 수용할 만한 증거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의 이슈를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치료 분야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여건, 기본적인 질적 연구방법의 지식 및 과학적 조사연구의 요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지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면 앞으로 가족치료 분야는 학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정부정책 혹은 재정지원 기관으로부터의 지원도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학생, 치료자, 그리고 연구자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교육 혹은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역할이 중요하다. 질적 가족치료 연구방법에 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연구방법에 관한 분명한 정보는 지식의 발전에 중요하다. 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사연구를 수행하는지의 지침을 제공하고 연구결과의 해석을 돋는다. 교육자들이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이슈에 우선권을 둔다면 임상적 실천과 가족치료 연구분야 사이의 생산적이고 상호적인 영향은 증대될 것이다. 강좌와 과목은 특별한 임상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최신의 방법들을 반영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의 연구기반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Sprengle & Piercy, 1984: 230-234).

이와 더불어 교육자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원칙들을 모델화하여 이러한 모델에 따라 가르치는 것과 치료의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더욱이 가족치료 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은 가족치료 관련 연구논문들을 수록한 전문학술지를 포함하여 복잡한 자료기반에 접근하고 있는지, 더욱이 대부분의 치료자들은 자신들의 사례에 적합한 내용을 담은 이러한 자료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치료의 변화를 위해서는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방법이 체계적으로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발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필연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다양한 연구방법의 관점과 기법의 활용, 각 관점의 불완전성의 인정, 비체계적이고 비이론적 절충주의의 배제, 그리고 개혁과 변화를 위한 개방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문성호, 1997: 158-159). 실질적으로 질적 그리고 양적 연구방법은 둘다 가치 있는 연구 관점들을 제공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치료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법론적 원리를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로 가족치료는 지금 하나의 연구방법이 지난 장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방법론적 접근의 확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성천, 노혜련, 최인숙. 1996. "한국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 기법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8, pp. 101-133.
- 김연우. 1993. "사회사업가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 pp. 201-224.
- 문성호. 1997. "사회사업실천의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 통합적 접근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33, pp. 144-161.
- 송성자. 1997.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해결중심 가족치료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32, pp. 160-180.
- 최균. 1995.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1995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14.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4, pp. 215-245.
- Allman, L. R. 1982. "The Aesthetic Preference: Overcoming the Pragmatic Error". *Family Process*. 21, pp. 43-56.
- Bednar, R. L., G. M. Burlingame and K. S. Masters. 1988. "Systems of Family Treatment: Substance or Semantic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pp. 401-413.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wn, M. J. 1988. "Reconstruction of Which Reality?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J. P. Goetz & J. Allen(Eds.).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ubstance. Methods,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Conferenc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Group. pp. 91-103. Athens, Georgia.
- Cohen, L. H., M. M. Sargent and L. B. Sechrest. 1986. "Use of Psychotherapy Research by Professional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41, pp. 198-206.
- Corbin, J. and A. Strauss. 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 pp. 3-21.
- Daly, K. 1992. "The Fit Between Qualitative Research and Characteristics of Families." In J. F. Gilgun, K. Daly, & G. Handel(Eds.).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pp. 3-11. Sage Publications, Inc.

- Eisler, I., C. Dare and G. L. Szmukler. 1988. "What's Happened to Family Interaction Research? An Historical Account and a Family Systems Viewpoi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4. pp. 45-65.
- Elliott, R. 1984. "A Discovery-oriented Approach to Significant Change Events in Psychotherapy: Interpersonal Process Recall and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 In L. N. Rice & L. S. Greenberg(Eds.). *Patterns of Change: Intensive Analysis of Psychotherapy Process*. pp. 249-286. NY: Guilford.
- Firestone, W. A. 1987. "Meaning in Method: The Rhetoric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16. pp. 16-21.
- Gilgun, J. F. 1991. "Discovery-oriented Qualitative Methods Relevant to Longitudinal Studi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R. H. Starr, & D. A. Wolfe(Eds.).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144-163. NY: Guilford.
- Gilgun, J. F. 1992. "Definitions, Methodologies, and Methods in Qualitative Family Research." In J. F. Gilgun, K. Daly, & G. Handel(Eds.).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pp. 22-39. Sage Publications, Inc.
- Goolishian, H. A. and H. Anderson. 1992. "Strategy and Intervention Versus Nonintervention: A Matter of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 pp. 5-15.
- Hayes, S. C. and R. O. Nelson. 1981. "Clinically Relevant Research: Requirements, Problems, and Solutions." *Behavioral Assessment*. 3. pp. 09-215.
- Haynes, S. N., C. Lemsky and K. Sexton-Radek. 1987. "Why Clinicians Infrequently Do Researc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 pp. 515-519.
- Hill, R. 1981. "Whether Family Research in the 1980s: Continuities, Emergents, Constraints, and New Horiz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pp. 255-257.
- Howe, K. R. 1988. "Against the Quantitative-Qualitative Incompatibility Thesis or Dogmas Die Hard." *Educational Researcher*. 17. pp. 10-16.
- Jacob, E. 1988. "Clarifying Qualitative Research: A Focus on Traditions." *Educational Researcher*. pp. 16-24.
- Kuehl, B. P., N. A. Newfield and H. Joanning. 1990. "A Client-based Description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 pp. 310-321.
- LaRossa, R., L. A. Bennett and R. J. Gelles. 1985. "Ethical Dilemmas in Qualitative Family Research." In G. Handel(Ed.). *The Psychosocial Interior of the Family*. pp. 95-111. NY: Aldine.

- Liddle, H. A. 1991. "Empirical Values and the Culture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7. pp. 327-348.
- Lincoln, Y. and E.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NY: Sage.
- Lincoln, Y. and E. Guba. 1990. "Judging the Quality of Case Study Re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3. pp. 53-59.
- Moon, S. M., D. R. Dillon and D. H. Sprenkle. 1990. "Family Therapy an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 pp. 357-373.
- Morrow-Bradley, C. and R. Elliott. 1986. "Utilization of Psychotherapy Research by Practicing Psychotherapists." *American Psychologist*. 41. pp. 188-197.
- Murphy, S. 1990. "Thoughts about Patterns of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Family Research*. 4. pp. 9-21.
- Smith, J. K. and L. Heshusius. 1986. "Closing Down the Conversation: The End of the Quantitative-Qualitative Debate about Educational Enquirers." *Educational Researcher*. 15. pp. 4-12.
- Sprenkle, D. and F. Piercy. 1984. "Research in Family Therapy: A Graduate Level Cours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pp. 225-240.
-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seman, J. P. 1981. "The Family and Its Researchers in the Eighties: Retrenching, Renewing, and Revitaliz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pp. 263-266.
- Wynne, L. C. 1983. "Family Research and Family Therapy: A Reun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pp. 113-117.
- Yin, R. K. 198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e Field of Family Therapy

Moon, Sung 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to analyze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in the field of family therapy. First,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typical features of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are described. Second, contents related with meanings, adequacy, and application proces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e field of family therapy are discussed. Third, cardinal issues that c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qualitative family therapy research are review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rovide a scientific and systematic way of looking at family therapy holistically. These methods may add new dimensions to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family therapy and thus increase its diversity. The versatilit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s a good match for examining the complexity and the diversity of family forms and experience. Therefor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has the potential to advance the science and practice of family therapy and that family therapy researchers have the potential to advanc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e field of family therapy in Korea are suggested.

Tel : (02)3444-8381, 학교전화 : (02)820-5149

Fax :

E-mail :